2022년 평화주민사랑방 문제제기 관련 경과 및 관련 자료

날짜	내용
3월 16일	[정기총회] “평화주민사랑방 문태성대표의 문제제기” 에 대한 전북장차연의 입장 표명 <첨부문서1.>
3월 21일	전북장차연 3월집행위(총회때 표명된 입장문을 외부 공개할지에 대한 1차 논의)
4월 1일	전북장차연 4월집행위: 외부공개에 대한 2차논의 (공개전에 전 공투본 집행위원장에 동의를 얻고 공개하자)
4월 26일	전)공투본 집행위원장 만나 동의 받음.
5월 13일	전북장차연 2차 대의원회의(5.16일 외부공개 결정에 대해 각 단체들에 공유)
5월 16일	전북장차연 페이스북 게시및 각 시민사회단체 이메일로 발송
5월 20일	평화주민사랑방, 전북장차연의 입장문에 대해 우리단체(평화주민사랑방)의 요구사항에 해 당하는 내용을 발견하지 못하였다고 게시.
5월 25일	민주노총전북본부, 평화주민사랑방 간담회(평화주민사랑방 강현석대표, 유승권집행위원장에 대외활동 1년 중단, 장차연 명의의 사과문, 김** 전공투본집행위원장의 장00 활동가에 대한 사과요구.)
5월 31일	민주노총전북본부 김** 전공투본집행위원장 미팅.
6월 10일	전북장차연 6월집행위(선거시기 평화주민사랑방은 전북시민사회단체들에 전북장차연 회원단체인 전북녹색당과 정의당이 반인권적이다는 내용의 이메일 발송한 것에 공유, 이에 고발해야 한다는 입장과 법적대응은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나뉨, 이 사안 관련 민주노총과 간담회 하기로 한 것에 대해 공유)
6월 15일	전북장차연 3차 대의원회의(평화주민사랑방 문제에 대해 법적대응 유보 하기로 결정.)
6월 16일	강현석대표와 민주노총전북본부 간담회(문태*대표가 민주노총에 전달한 내용 공유됨) **<1차 조정안>** **① 강현석대표, 유승권집행위원장 1년 활동 정지** **② 진정한 사과(이연* 활동가가 농성할 때 연대하지 못한것에 대해)** **③ 사과문은 사전에 문태*대표에게 검토받아야 함**
6월 23일	민주노총전북본부/ 평화주민사랑방/ 이연* 활동가 간담회(대외활동 중단의 범위, 사과문의 구체내용 확인, 장00 활동가에 대한 사과는 필요하지 않음을 확인, 전공투본 집행위원장이 스스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강의 등을 통해 언급 지속할 것이라는 평화주민사랑방 입장 확인)
7월 7일	강현석대표가 민주노총에 평화주민사랑방 요구(1차조정안)를 수용하겠다는 의사 전달.
7월 13일	**민주노총전북본부와 평화주민사랑방 간담회(문태성대표가 다시 2년 이상 활동정지 요구했고, 민주노총은 이와 같은 조정은 불가하다고 답함)**
7월 15일	전북장차연 4차 대의원회의(2년이상 활동정지 요구에 대해 소통됐고, 새로운 요청으로 다시 논의해야는 것 아닌가라는 의견 있었지만 강현석대표의 스트레스가 심한 상황으로 활동정지에 대해 수용하고 사과문을 강대표에 위임하기로 결론)
7월 21일	전공투본집행위원장 김**을 전북장차연 사무국장 양**이 만나서 민주노총 문제제기에

	대해 이야기를 나눔.(첨부문서2. -전공투본집행위원장 김** 미팅내용)
7월 27일	민주노총전북본부 “손수레협회 사안(2017년)관련 민주노총전북본부 입장”(첨부문서 5.)을 전북장차연에 보내옴.(주요내용: 해당 문제를 전북장차연의 조직적 절차와 기준에 입각해 객관적인 조사와 이에 따른 적절한 책임이 수반되어야 함. 당시 공투본 문제에 대해 관련된 사람을 가/피해자로 구분하는 것은 적절치 않음. 민주노총전북본부는 이상의 문제 해결을 위한 절차가 진행될때까지 전북장차연 소속단체로서의 활동을 중지하고자 함.)
8월 23일	**<8월 임시집행위 논의> 민주노총전북본부에서 말하는 객관적인 조사는 손수레센터에 대한 조사가 아니라 2017년 공투본의 결정(감사추천 하지 않기로 함)에 대한 것으로 이해하는 것을 공유하고, 현재 우리만으로 재조사 어려움을 확인 (사유: 오랜 시간이 지났고, 당시 참여 대표자들이 없는 상황, 전북공투본이 흐지부지된 상황)** **민주노총이 재조사를 요구한다면 연대단체로서 함께 하자고 제안하는 것이 맞다는 취지로 답변하는 것을 논의함.**
9월 29일	-9월 28일 강현석, 유승권 사과문을 평화주민사랑방에 발송, 검토요청 -평화주민사랑방은 7월 27일 민주노총 공문이후 민주노총, 평화주민사랑방, 강현석 대표와의 합의는 깨진것이라고 함. 사과문에 2년활동정지를 언급한것에 대해 평화주민사랑방과의 협의라는 표현은 빼달라고 요청받음. 그리고 2년 활동정지에 대해서는 전북장차연이 알아서 할일이고, 사과문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못한다는 구두답변 받음. -무엇이 문제인지 알려달라고 요청했으나 평화주민사랑방 홈페이지에 정리되어 있으니 와서 보라는 답만 받음.
첨부문서	1. 평화주민사랑방 문제제기에 대한 전북장차연의 입장표명 2. 2022년 7월 21일 - 전 공투본 집행위원장 김** 미팅내용 3. 전북장차연 분쟁중재위원회 활동보고(2018년) 4. 전북장차연 사과 기자회견문(2021년) 5. 손수레협회 사안(2017년)관련 민주노총전북본부의 입장 6. 강현석대표 사과문(9월 28일)

첨부문서1. -평화주민사랑방 문제제기에 대한 전북장차연의 입장표명

“평화주민사랑방 문태성대표의 문제제기”에 대한 전북장차연의 입장 표명

2022년 3월 16일 총회 제출문서

자림원 인권침해(성폭력)와 거주시설 거주인에 대한 탈시설, 지역사회 내 자립생활 강화 등을 이유로 전북장차연, 자림성폭력대책위, 평화의집전국대책위 및 개별단체들이 참여하는 ‘전북장애인인권보장공동투쟁본부(전북공투본)’을 결성하게 되었다.

이러한 결의는 결국 전라북도의 제도개선을 위해 천막농성을 시작하게 되었고 일부 협의가 이루어져 2016년 10월 31일부터 2016년 12월 23일까지 54일 동안의 천막농성을 마무리(2017. 2. 16)하고 점진적인 협의들을 진행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전북장차연 소속 단체였던 손수레자립생활협회(손수레)에서 주간보호센터 이용인에 대한 폭행 의혹이 신문보도(2017. 5. 18. 전북CBS)를 통해 알려지게 되어 전북장차연 및 공투본에서 폭행에 대한 사안을 가지고 평화주민사랑방은 여러 문제를 제기하였다.

1 문제제기의 발단

○ 2017. 05. 18. 손수레장애인주간보호센터 이용인(여성 자폐성장애인)에 대한 **폭행 의혹에 대해 전북CBS가 보도**

-피해 사실: 주간보호센터 송원 후 무릎 윗부분에 두 줄의 멍자국 발견

-평화주민사랑방에서 피해를 호소하는 여성장애인 보호자를 면담했다 함

-가해자로 주간보호센터의 원장인 임*석(뇌병변장애인)씨의 활동지원사를 지목

○ 2017. 05. 23. 전북장차연 5월 월례회의를 통해 의견이 다르긴 했으나 다수의 결의로 **경찰수사를 지켜본 후 대응하기로 결정**

- 가해자로 지목된 활동지원사(본인도 장애인부모)의 강한 부정이 있었음

- 장애인부모 단체에서 피해자 보호자에 대한 불신도 있었음

- 피해자 보호자와의 상담을 진행하려 하였으나 여의치 않아 **상담 진행 못함**

○ 2017. 06. 08. **이연호 활동가의 전북도청 앞 1인 천막농성 돌입**

- 평소 경찰수사를 시켜보자는 의견에 반대해 온 활동가로 손수레 주간보호센터의 감사를 요구하며 단식 농성 돌입
- 초기에는 전북장차연 활동가들이 동참하였으나 중증센터 활동가의 자제로 인해 1인 농성을 이어감
- 추후 전라북도와 협의를 통해 손수레 주간보호센터 감사를 관철시키고 1인 시위를 종료

○ 2017. 07. 19. 공투본 대표자 회의를 진행하여 **손수레 대응문제에 대해 경찰수사를 시켜본 후 대응하기로 결의**
- 대표자들의 의견과 다른 집행위원장(김*용)은 사의를 표명
- 전북장차연과 같은 사유를 들어 결정

○ 2017. 07. 28. 전라북도가 공투본에 **'감사위원 추천협조' 공문 발송**
- 이연호 활동가의 협의된 내용으로 공투본에 감사추천을 요구

○ 2017. 08. 01. 공투본은 **전라북도에 '감사위원 추천하지 않음'로 공문 발송**
- 공투본 대표자회의 결정내용과 재차 유선상으로 감사추천에 대해 의향 물어 '감사위원 추천하지 않음'으로 결정
- 추천하지 않음에 대한 사유로는 같은 회원단체가 회원단체를 감사한다는 모호성과 객관적인 감사위원 추천을 하기 어려운 상황 등을 이유로 결정

2 평화주민사랑방 문태성의 문제제기

○ **피해자나 보호자 상담없이 대응 전략에 대해 결정한 부분**
- 가해 측은 손수레 주간보호센터 원장 상담은 진행되었으나 피해자 중심의 상담을 진행하지 못함에 대한 문제 제기

○ **정식 회의 없이 감사추천을 하지 않았던 부분**
- 감사추천협조 공문에 대해 공식적인 회의없이 결정한 내용에 대한 문제 제기

○ 공투본 회의 때마다 **본인이 참석하지 못하는 날을 의도적으로 회의 일시를 지정한 부분**
- 일시에 대해 참석하기 어렵다는 내용을 전하고 변경을 요구했음에도 변경하지 않고 강행한 것에는 의도가 있다고 판단하여 문제 제기

3 문제제기에 대한 전북장차연의 대응

○ 2017. 08. 25. 전장연과 전북장차연 간담회 진행

- 손수레 주간보호센터 대응 미숙과 피해자 상담 미진행 등의 사유로 2명의 공동대표가 사임함
- 전장연의 중재로 이연호 활동가를 포함한 비대위를 구성하기로 함

○ 2018. 04. 06. 2차 비상대책위원회 회의 진행
- 이연호 활동가의 비대위 탈퇴로 비대위에서 재건위원회로 전환

4 평화주민사랑방 문태성의 요구사항

○ 전북장차연의 **진정어린 사과와 그에 상응하는 책임**
- 현 집행부의 전원 사퇴와 진정성을 담은 사과문
- 잠정적인 활동 중지 수준을 요구

○ 공투본 대표자와 **당시 집행위원장의 진정어린 사과와 그에 상응하는 책임**
- 공투본 대표자 회의에서 감사추천 하지 않음으로 동의한 대표자 공개와 진정어린 사과, 당시 집행위원장의 사과와 책임 등을 요구

○ 손수레 **재감사 요구와 본인의 감사추천**
- 이러한 요구를 이행 시 손수레 재감사 요구와 본인의 감사 참여 보장

5 요구사항에 대한 전북장차연의 대응

○ 전북장차연은 재건총회 개최를 준비하기 위해 **2018. 09. 07. 회의 / 2020. 11. 18 일 재건총회를 위한 회의 / 2020년 11. 27. 준비위원회 회의 / 2021. 01. 25. 재건을 위한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문제제기에 대해 논의를 이어가며 현재까지 활발히 활동

○ 2021. 01. 28. '전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 재건 선포식 및 전 공동대표 사과' 기자회견을 진행하여 소속 단체에서 발생한 장애인 학대사건에 대해 미흡하게 대응했던 사실을 인정하고 **인정어린 사과와 함께 새로운 장애운동을 재건함을 선포함**

○ 또한 **공투본 전 대표자들과 평화주민사랑방 문태성과의 두 차례 회의를 진행**하였으나 의견 차이를 좁힐 수 없어 더 이상의 회의는 진행되고 있지 않음

6 전북장차연의 현 입장

○ 문제제기의 내용 중 피해자 상담 부재에 대해서는 우리 조직문화가 깊이 있는 반성과 성찰이 필요한 부분임을 인정하며 이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금번 정기총회

규약개정안에 **부칙 제3조를 신설하여 '인권의 침해와 학대의 피해가 있는 장애인의 보호 및 구제시 상담은 반드시 피해자 중심으로 진행하고 편의제공과 진술조력자(보호자 등 포함)의 참여를 원칙적으로 보장한다.'로 명시함.**

○ 문제제기의 하나인 전 집행부의 사퇴는 **이미 2017. 08. 25. 전장연 간담회 때 두 대표자가 사임하여 3년 이상의 전북장차연 활동을 휴면**하였으므로 이미 책임을 다했다고 볼 수 있음.

○ 공투본 전 대표자와의 두차례 회의를 통해 진정어린 사과문 게재, 강현석 전대표자와 임미영 전대표자의 잠정적 외부 활동 자제, 재발방지를 위한 규약개정 등을 요청했으나 **유승권 집행위원장의 사퇴와 공투본 전집행위원장 김*용씨의 사과와 책임 등을 요구하여 사실상 논의 자체가 결렬**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음.

○ **2020년 12월 경 전장연 지도부와의 전북장차연 간담회에서 '무대응' 원칙**을 논의한 바 있어 이제 우리 **장애운동에 있어 당사자주의를 표방하며 우리의 길을 묵묵히 가야할 것임**.

○ 근 **4년 넘게 고통스러워 했던 많은 장애인활동가와 회원단체의 반성과 성찰**을 통해 더욱 **굳건하고 단단한 장애운동이 재건**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며 **13만 전북장애인의 인권 수호와 권익 쟁취**를 위해 힘차게 함께 나아갈 수 있어야 **미래지향적인 가치와 철학을 확고**히 할 수 있을 것임.

<첨부문서2.> 2022년 7월 21일 – 전 공투본 집행위원장 김병* 미팅내용

<민주노총 전북사무처장이 7월20일 문제제기한 부분>
1) 이연* 활동가의 1인시위를 통해 감사가 관철됐는데 집행위원장이었던 김병*이 이연*에게 감사위원 추천협조 공문을 보여주지 않음.
2) 감사위원을 추천하지 않겠다는 결정을 내린 대표들은 1인시위 당사자 이연*와 상의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
3) 3년의 활동휴면을 했다고 했지만 이동권연대나 벧엘,무주대책위등으로 활동을 지속해왔고 외부에서 봤을때 면피하는것읇 보일수 있음.

○ 1번과 2번은 정황상으로는 맞지만 당시의 주체의상황과 조직의 구조적 문제들이 빠져있음.
김병*은 2017년 3월 아이를 출산한이후 몇주간 삼후조리원에서 지냈고 이후 부안에서 1개월, 그 이후에는 정읍처가에서 지내며 전주를 오가는 상황이었음.

○ 2016년부터 자림원문제, 남원평화의집 관련해 많은 시설문제 사안들을 해결하기 위해 공투본 꾸리고 농성을 했지만 운영이 잘 안돼 정리를 하냐 마냐는 논의가 있었고,
1인활동가 체계의 버거움, 말만하고 실천은 안되는 문화, 회의진행이 안되는 문제, 활동가들간의 갈등상황 등으로 많이 지쳐 활동에 대한 의지를 잃고 있었음. 완전히 활동을 접겠다고 하고 부안에서 오가는 상황이었음. 그런 상황에서 손수레사건과 부모연대 사건이 연달아 터짐.

○ 2017.7.19 공투본대표자 회의에서 손수레문제에 대해 경찰수사 지켜본 후 대응하기로 결정이 남. 김병*은 **"개인활동가들은 감사하겠다고 하는데 대표들이 가만 있을거냐"**라고 문제제기하며 감사를 해야한다고 주장했지만 관철되지 않아 집행위원장 사의를 표명.
"활동가들이 농성할 때 전북도에서 공문오면 어떡할거냐...개입하지 않기로 결정하면 이후 도에서 연락이 오거나 하면 어떻게 할거냐", "그래도 지금 회의결과대로 유지할거냐"라고 물었음.
감사추천 공문이 왔고 회의를 할수 없는 상황에서 지난 공투본 참여자들에게 유선으로 재차 확인하였고 감사 추천하지 않겠다는 공문을 보내게 되었음. 이후로도 박윤*과 통화하며 앞으로의 일을 의논하기도 했다고 함.

○ 당시 이연*와는 신뢰관계가 이미 깨진상태였고, 장차연활동가들 모두를 대면하기 어려울 정도로 마음이 피폐해져 있었음. 그러다 권익옹호기관을 준비하면서 도청을 출입하게 되었고 도청출입을 하면서 이연*가 농성하고 있는 곳에 가보지 못했음. 얼굴 보기가 힘겨웠고 농성하고 있는데 권익옹호기관 준비로 도청 출입하는 것을 알리고 싶지 않았음.
장미*을 보는것도 어려웠는데 박윤*과의 관계로 어려움을 겪어 도와달라고 찾아와 지원을 해줌. 관계가 껄그러운데 도움 요청하는 전화가 계속되자 불편함을 표현하고 관계 단절됨.

○ 이연*에게 공문을 보여주지 않은 것은 결과적으로 보면 조직적으로 배제한 것으로 보여지지만, 공투본은 전북장차연 인터넷 팩스를 공용 사용하고 있었고, 이연* 활동가와 전라북도가 감사관련 협의가 된 내용을 알지 못하였고, 공투본 공동대표자회의를 통해 개입하지 않음의 변동이 없었으므로 전라북도에 감사추천하지 않겠다고 답변 공문을 보내게 됨. 문태*대표가 참석하지 못하는날 회의일시를 잡은 것도 의도한게 아님. 회의소집이 잘 되지 않았고 회의 일시를 잡을때마다 평화주민사랑방 일정과 겹쳐 참석을 못한 것임.

<첨부문서3.>- 전북장차연 분쟁중재위원회 활동보고(2018년)

전북장차연 분쟁중재위원회 활동보고(2018년)

주문 사항

전북장차연 분쟁중재위원회 활동 보고에 대하여 확인 및 검토를 해주십시오.

1. 전북장차연 분쟁 중재위원회 구성 경과

1) **사건 진정** : 2017년 7월 20일 전북장차연 유00, 정00 공동대표가 전북장차연 활동가들의 비난과 공격적인 말에 크게 상처가 되며, 따라서 전북장차연 대표직을 사임하고, 이와 관련하여 조사를 요청

2) **전북장차연 중재위원회 구성** : 2017년 8월 전장연 중앙운영위원회는 박옥순(전장연 중앙운영위원), 박길연(전장연 중앙운영위원, 인천장차연 공동대표), 민용순(전장연 중앙운영위원,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부회장)을 중재위원회로 구성하여 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 실무 담당으로 전장연 박철균선전국장 선임.

2. 전북장차연 분쟁 중재위원회 활동 보고

1) **조사 근거**

- 2017년 5월 전북장차연 소속단체인 '전북 장애인손수레자립생활협회'에서 운영하는 주간보호시설에서 이용인에 대한 폭행 사건이 일어났다는 제보에 따라, 전북장차연의 대응이 진행됐고, 대응 과정에 대해 지역 활동가들의 문제제기가 있었음. 그 과정에서 SNS 등의 공동 공간에서 상대방에게 모욕적인 언어 공방이 있었고, 전북장차연 공동대표, 유00, 정00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에 사직의사를 밝히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에 전북장차연 분쟁에 대한 진정을 하게 됨.

- 이에 따라 2017년 8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전북장차연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을 결의하였고, 동 시기에 발생한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전북지부의 상황을 포함한 전북장차연 분쟁 상황을 조사하고, 이를 조정하기 위한 활동을 시작하기로 함.

2) **목적** : 전북장차연(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전북지부의 분쟁 내용 포함)에서 발생한 구성원 간의 분쟁 상황 조사과 중활동 및 전북장차연의 조직체계를 구성함

3) **조사대상 및 내용**

이름	소속 및 지위	조사내용
유00	전북장차연 前 공동대표	- 분쟁조정 의뢰 경위/분쟁 상황 확인
정00	전북장차연 前 공동대표	- 분쟁조정 의뢰 경위/분쟁 상황 확인
이00	중증장애인지역생활지원센터 前 활동가	- 전북장차연 분쟁 상황 확인
박00	전북장차연 前 사무국장	- 전북장차연 분쟁 상황 확인
장00	전북장차연 前 활동가	- 전북장차연 분쟁 상황 확인

4) **조사기간** : 2017년 8월 20일~2018년 2월 1일

5) **조사장소** : 전북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와 서울 스터디룸 공간 등

6) **조사방법** : 면담, 속기

7) **조사원칙**

- 조사대상자와 개별면담방식으로 진행한다.
- 조사자는 조사를 시작하기 앞서, 피조사자에게 조사동의 및 진술협조 확인서를 받도록 한다.
- 피조사자의 진술내용은 본인 날인을 통해 확인을 받는다.
- 조사자는 피조사자에게 감정적 호소 혹은 유도신문 등을 하지 않는다.
- 조사자는 조사내용에 대해선 비밀을 유지한다.
- 조사자는 사전질문 내용을 구성하여 본 안과 상관없는 질문이나 설득을 하지 않도록 한다.

8) **참고자료**

- 면담자 속기록
- 전북장차연 3차 전체회의 속기록 및 요약 내용

3. 분쟁중재위원회 조사 과정 요약정리

1)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전북지부의 분쟁 상황 정리 요약

-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전북지부의 대표와 관련된 문제 상황과 관련하여 10월 13일 전북지부 이사회를 통해서 대표가 해임되고, 이사 전원 역시 해임됨.
- 이후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중앙에서 지역 시민단체를 포함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조직실 활동가를 매주 파견하는 등 상황 수습을 위한 노력을 전개함.
- 이에 따라, 전북장차연 분쟁중재위원회가 관여하지 않고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전북지부의 분쟁에 대한 조정은 종료함.

2) 전북장차연 분쟁중재위원회 활동 과정

- 2017년 8월 25일, 중증장애인지역생활지원센터 회의실에서 열린 전북장차연 전체 간담회에 박길*, 박옥* 분쟁중재위원이 회의에 참석하며 전북장차연 분쟁조정을 위한 첫 회의를 분쟁 당사자와 전북장차연 회원 단체가 모두 모인 자리에서 시작했음
- 2017년 9월 8일, 전주 모처에서 이OO 활동가와 활동 조력인 자격으로 문OO 활동가를 박길*, 박옥* 활동가가 만나서 면담을 진행했음
- 2017년 10월 23일, 서울 종각의 스터디룸에서 전북장차연 전 대표인 유00 활동가를 박길*, 박옥*, 민용* 분쟁조정위원이 함께 만나서 면담을 진행함
- 2017년 11월 ~1월 20일, 전북장차연의 분쟁 상황에 당시 활동했던 전북장차연 전 사무국장 박00, 당시 활동가 장00에게 조사 요청을 계속 했으나, 거절함
- 2017년 2월 1일, 전장연 중앙운영위원회에 전장연 중앙운영위원회의 중재위원회 활동 보고 등

4. 분쟁중재위원회 구체적인 활동 내용

1) 2017년 8월 25일 전체 간담회 요약 정리(회의 진행 : 유승권, 박옥순 기록 : 박철균)

① 전체 간담회를 시작하기에 앞서, 전북장차연 전체 간담회에 이00활동가의 손수레센터의 전체 간담회 참여를 반대하는 의견에 대해, 참여한 모든 사람들의 의견을 모아, 당일에 진행 예정인 전북장

차연 전체간담회에 손수레센터가 참여하되, 손수레센터에 필요에 의해, 잠시 회의장에서 떠나있을 것을 요청하는 안으로 가결함. 손수레센터는 이를 수용하여 전북장차연 전체 간담회에 참여키로 함.

②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제 폐지 농성 정리에 관해 정보를 공유함

③ 회의에 참여한 사람들의 요청으로 유00, 정00 공동대표가 사임을 결심하게 된 이유를 설명함. 두 대표는 “중증의 장애를 가진 당사자로서 일 처리가 늦거나, 사건 해결에 대한 경험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손수레il 사건을 접하며, 상당히 어려웠음. 그런데 사건 처리를 빨리 하지 못한다고 비난하고, 공격하는 말들에 감정적으로 버거웠음. 그러나 대표로서 책임지는 자리이기에 상당히 인내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자존감이 한없이 추락하여, 더 이상 버티기 어려워서 사임한다.” 라고 밝힘. 또한 “본 상황이 만들어지는데 주효한 역할을 했던 손수레il센터의 주간보호센터 인권침해 문제를 잘 해결하는 것이 필요했는데, 그것을 올바르게 해결하지 못한 것이 발단이며, 이는 전북장차연이 활동가 중심으로 활동하다 보니, 그러한 상황이 나타났던 것 같고, 따라서 지금의 활동가 체계가 아니라, 전북장차연이 다른 체계로 조직 구성이 될 필요가 있어서 사임을 표명했다“고 말함.

④ 간담회에서 장00활동가가 그 자리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전북장차연 단톡방에 참여하지 않는 사유를 묻자, 계속되는 단톡방의 비난성, 공격성 말들에서, 의견 개진을 제대로 하지 못했을 때, 공격을 받을 것 같아서 단톡방에 참여하지 못했다는 대부분의 참여자들의 응답이 있었음.

⑤ 7인의 구성으로 비대위를 구성키로 함. 전북장차연 분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결의하고, 단 확답하지 않은 이00 활동가에겐 일주일 동안 비대위원 활동에 대한 결정을 기다리기로 함. 먼저 회의자리를 떠난 장00는 박옥순 중재위원이 직접 전화를 걸어서 의사를 타진키로 함. 특히 전북장차연 활동에 대해 문제제기를 했던 이00활동가와 장00활동가의 비대위 필히 참여하여 전북장차연 비대위를 결성하고, 이를 통해 현재 전북장차연을 새롭게 조직 구성을 하고, 과거의 힘있는 투쟁이 하루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로 함. 비대위원으로 추천된 사람은 이연*(전북장차연 활동가), 장미*(전북장차연 활동가), 신동*(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 활동가), 황지*(성폭력예방치료센터 대표), 이*(전북작은자의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사무국장), 유승*(전북장차연 전 공동대표), 박옥*(전장연 중재위원)임. 한편, 이00활동가가 비대위 참여가 어렵다면, 이00활동가가 추천한 사람으로 비대위원을 구성하기로 함.

2) 비대위가 구성되지 않음(2018년 3월 18일 현재)

① 전체 간담회 종료 후에 박옥* 중재위원회 장00에게 비대위 참여 요청을 했고, 수락함

② 일주일여의 시간을 두고 이00활동가에게 비대위원 참여에 대해 확인 전화를 했음. 3가지 조건을 수용하면, 비대위원으로 활동하겠다고 대답함.

1. 공투본 회의 소집 후 해산하라
2. 중증센터는 활동가들한테 집단 활동 중단 및 개인적으로 활동하라는 말씀 대해서 사과하라
3. 손수레는 장차연 카톡 방에 들어와 있는 사람 나가고 제명 및 탈퇴하라 위 3가지 조건이 수용됐을 때, 비대위에 참여하는 것으로 함

③ 위 세 가지 조건은 전장연 중재위원회의 권한이 아님을 밝히고, 이 조건 수용 여부는 전북장차연 전체회의를 통해서 이야기를 할 수 밖에 없음을 유선을 통해 이야기 함

④ 그리고 곧이어 2017년 9월 8일 이00활동가에 대한 중재위원의 조사에서 이00활동가와 중재위원이

아래와 같이 이야기를 나눔.

1. 손수레가 전북장차연에서 탈퇴를 전제로 한 이00활동가의 비대위원 참여하는 것은 취소하겠다. 그러나 이00활동가는 개인적으로 전북장차연 전체회의시 손수레가 참여한다면 나가라고 하겠다.

-----> 손수레의 전북장차연 탈퇴 문제는 결과적으로 전북장차연 전체회의에서 의논할 사항이기 때문이다.

2. 유00활동가가 비대위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이00활동가가 비대위원에 참여하겠다.

-----> 전북장차연 전체회의에서 의논할 사항임

3. 강현*, 유승*, 정해*, 김정* 김병* 5명은 이00에게 사과를 하라

-----> 중재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가지고 마땅히 그럴만한 사유가 된다면 사과를 요구한다. 2차 조사 과정에서 얘기를 나누기로 한다.

4. 전북장차연 활동을 공식적으로 강현*소장이 활동했으면 좋겠다. 이번 사건으로 신뢰가 많이 깨졌지만 활동하는 것이 좋다. 단, 강현*소장이 가지고 있는 권력을 많이 나눴으면 좋겠다. 강소장이 가지고 있는 여러 경험과 노하우를 다른 활동가들과 나눴으면 좋겠다.

-----> 중재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가지고 강현*소장에게 제안한다.

- 마무리 : 이00 활동가와 중재위원이 10월 말까지 한 번 더 만나기로 하고, 그 결과를 전북장차연 전체회의에 제출키로 하고, 전체 회의에서 의논하기로 함. 비대위는 그 이후에 구성키로 함.

③ 그러나 이00활동가는 중재위원회의 2차 조사를 거부했고, 이어서 장00활동가와 박00활동가도 중재위원의 면담을 거부하면서, 결과적 중재위원회의 활동은 잠정 휴지기 상태이고, 비대위 구성은 되지 않았음.

3) 2017년 9월 8일 이OO활동가 조사, 조력인으로 문OO 참여(중재위원 박옥순, 박길연, 기록 문상민)

- 먼저 문00 조력인이 그간의 전북장차연 상황을 전체적으로 이야기함. 그리고 이00활동가와 조력자 문00 활동가를 통해서 개인적으로 전북도청에서 1인시위하고 농성 투쟁 했던 그간의 상황을 공유하고, 전북장차연의 미온적인 대처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였음.
- 이OO 활동가의 비대위 참여 조건으로 요청한 사안(손수레 센터 전북장차연 탈퇴, 유OO 비대위 불참, 관련된 5명의 사과, 전북장차연 활동에 대한 강OO 중증센터 소장의 공식적 활동) 등에 대해서 의논함. 해당 사안에 대해선 중재위원회의 조사 결과와 차후 전체회의를 통해 의논할 사항임을 확인함.

- 마무리 : 이00 활동가와 중재위원이 10월 말까지 한 번 더 만나기로 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전북장차연 전체회의에 제출키로 함. 이 결과에 대해 전북장차연 전체회의에서 의논하여, 이후 전북장차연의 조직 구성과 활동을 향한 비대위원회를 구성키로 함.

4) 2017년 10월 23일 유OO 전 전북장차연 대표 면담

- 손수레 센터의 인권침해 상황을 접했을 때, 전북장차연에 실무를 담당한 사람이 없었고, 두 대표가 실무 경험이 없었던 상황에서 사건 대응에서 피해자를 먼저 만나지 않은 점 등 전북장차연의 실수가 있었음
- 사건 대응이 제대로 되지 않음이 전북장차연 분쟁의 원인이고, 이런 점에 대해 두 대표의 장애나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모욕적인 비난을 SNS에서 상시적으로 했고, 이는 지역 장차연 전체의 의견 개진이 잘 안되는 결과를 만들었음

5) 2017 11월 ~ 2018년 1월 중재위 활동 보고

- 분쟁중재위는 이후 이ㅇㅇ을 한차례 더 만나고, 박oo, 장oo의 면담을 진행하려고 하였음. 전장연과 대화하지 않겠다며 면담을 거부함. 중재위원회를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이 그 이유임
- 이후 분쟁 중재위는 전북장차연 카톡방, 각 단위에 비대위 구성 등 전북장차연 지역 조직 재건을 위한 전체회의를 제안하였으나, 이oo, 장oo의 반발과 전북장차연 각 단위에서 응답을 해오지 않는 등의 어려움이 있음.
- 한편 손수레 센터를 둘러싼 인권침해 문제는 2018년 1월 중순 무죄판결을 받은 것으로 전달받았으나, 재판 결과는 이송되지 않음.

5. 2018년 1차 전장연 중앙운영위원회의(2018. 2. 1) 의논 및 결정 사항

1) 살펴보아야 할 문제 지점

- 인권침해 상황에서 실무자와 경험자가 없었다 하더라도, 가장 먼저 진행해야 할 피해자 조사를 하지 않고, 전북장차연의 활동 방향을 결정한 부분에 대해, 공동대표를 포함하여 전북장차연 집행부가 사건에 관한 초기과정에서 놓친 문제가 지적됨.
- 이에 대해 일을 하지 못한다고, 빠르게 하지 못한다는 비난과 공격적인 말로, 상처를 입은 공동대표의 사임과 관련하여, 활동가들의 인권적이지 않은 태도에 대한 문제가 지적됨.
- 또한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하는 소통 공간인 단톡 방안에서 비난과 공격적인 말로, 많은 사람들이 의견 개진을 하기 어렵게 한 문제도 지적됨.
- 전장연 조직의 중요한 의사결정 구조인 중앙운영위원회가 구성한 전북장차연 중재위원의 조사를 거부하여, 중재위원회의 활동이 이어지지 않은 점이 문제로 지적됨. 전장연 중앙운영위원회에 대한 신뢰에 문제가 있음을 확인함.
- 중재위원회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비대위 구성이 되지 않고, 결과적으로 전북장차연 조직 재건이 늦어지면서, 전북장차연 활동이 크게 위축되고 있는 점이 지적되면서 빠르게 조직 재건을 향한 대안이 제시될 필요가 있음

2) 전장연 중앙운영위원회의 결정 및 제안 사항

- 인권침해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에, 피해자 조사가 초기 과정의 관건이었음을 간과하고, 전북장차연이 활동방향을 결정한 부분에 대해 전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와 집행부의 사과가 조직적으로 필요함.
- 비난과 공격적인 말들이 사람의 자존감을 무너뜨리고, 소통을 저해하는 인권침해적이고, 더구나 단톡 방 등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전북장차연 단톡 방에서 아예 함구하는 상황을 만들어낸 이00, 장00활동가의 사과가 필요하며, 이후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할 것임. 이에 관한 전북장차연 참여단위들의 의견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
- 전장연의 중요한 의사결정 기구인 전장연 중앙운영위원회의가 선임한 전북장차연 중재위원들의 조사를 거부함으로써, 조사활동 중단과 관련하여, 이00활동가의 입장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00활동가가 전장연 중재위원들의 조사를 거부한 원인 중에 하나로 신뢰의 문제가 있을 수 있기에 이를 살피는 과정이 필요함.

(가) - 전북장차연 중재위원들이 서울과 전주를 오고가야하는 거리상의 문제로, 전북장차연 분쟁 상황에 빠르게 대처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여, 전북장차연 전 상임대표인 강현*(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소장)이 '연결 고리'가 되도록 선임함.

- 전북지역의 중증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인권 확보를 향한 투쟁이 곧 시작돼야 할 420공동투쟁을 앞두고 있기에, 양자 간의 상호 존중을 기반으로 대화와 소통을 통해, 전북장차연이 활동을 진행하는데 협력이 되기를 바람.

6. 2018년 3월 16일 전북장차연 분쟁중재위원회 상황 보고회 후 전북장차연 동향

1) 2018년 3월 16일 전북장차연 분쟁중재위원회 상황 보고회

참석자 : [중증센터] 강현* / [평화인권연대] 채*, 풍* / [전북장차연 활동가] 이연*, 장미*, 박윤* / [변혁당] 홍현* / [새빛장애인IL센터] 김동* / [평화주민사랑방]문태* / [성폭력예방치료센터] 조미* /[전장연] 박옥*, 김선*, 조현*

결과 요약
1. 전북장차연 중재위원회 보고, 내용에 대한 검토 등 2. 전북장차연 비대위를 구성하며, 모든 사항은 비대위에서 의논하고 진행함 3. 비대위는 전북장차연 단톡방에서 소집할 예정이며, 전북장차연 참여단체이든, 아니든 원하는 모두가 참여할 수 있음 4. 중증IL센터의 강현석소장이 비대위 소집권자의 역할을 진행함

2) 2018년 3월 30일 전북장차연 비상대책위원회 1차 회의

참석자 : [중증센터] 강현* / [전북장차연활동가] 장미*, 이연*, 박윤* / [변혁당] 홍현*

결과 요약
1. **비대위의 역할과 기능, 조직 재건에 관해 의논함** - 전북장차연의 갈등에 대한 평가 필요. - 평가에 기반한 새로운 전북장차연의 재건으로 이어져야 함. - 이후 연대체 구성까지의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봄. - 전북장차연의 합의구조의 재구성. - 연대단위에 대한 고민도 필요함. 함께 할 수 있는 사업들도 배치되어야 함. - 연대단체들의 소속감이 부족하고, 스스로 장차연 회원인지도 모르는 단위도 있어 보인다. - 회원단체들의 참여가 부족했는데, 장차연이 재건되면 함께 할 수 있는 연대의 틀을 만들어야 한다. - 손수레에 대한 판단은 비대위가 아닌 전북장차연 조직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 - 전 대표들이 사퇴한 이유등의 부분은 평가서 작성에서 충분히 녹여낸다. - 비대위의 평가서 초안을 작성하고, 중앙과 소통하고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 평가서 초안은 박윤종 동지가 맡는다. - 평가서는 비대위 구성 배경, 재구성 전망 등을 담는다. - 차기 회의는 4월 6일에 진행한다. **2. 전 전북장차연 김병* 활동가 관련** : 비대위회의에서 본인 입장을 밝힌다는 의견을 강현석소장을 통해 전달했으나, 비대위에서 공투본 관련 논의를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확인함.

3) 2018년 4월 6일 전북장차연 비상대책위원회 2차 회의

참석자 : 강현*, 정윤*, 홍현*

※ 비대위에 함께 하기로 했던 박윤*, 장미*이 김병* 활동가와 관련된 대응활동을 하는 점, 이

연* 활동가가 배제된다는 이유로 비상대책위원회 2차 회의 직전에 비대위에서 탈퇴.

결과 요약
- 금일 2차 회의에서 평가서 초안 작성 단위를 결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판단함.(회의 참석 인원이 3명이었던 것에 대한 판단) - 비대위가 주관하여 토론회를 구성하기로 함. - 최대한 많은 회원단체를 포함한 모든 단체를 대상으로 하며,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토론회를 구성하자는 취지. - 토론회 주제는 “전북지역 장애인운동의 평가와 재건의 방향” 으로 한다. - 토론회는 4월 18일 수요일 14시, 장소는 민주노총 전북본부로 한다. - 토론회는 약간 명의 발제자를 두고, 이후 자유토론으로 진행한다. - 평가에 대한 발제는 강현* 동지와, 해당 동지들에게 요청 후 확인한다. - 재건과 방향에 대한 발제는 홍현* 동지가 맡는다. - 사회는 정윤*동지가 맡는다.

<첨부문서4.> -전북장차연 사과 및 재출범 기자회견문(2021년)

기자회견문

오늘 우리 전북장애인차별철패연대는 새로운 출발에 앞두고 지난 잘못을, 숨김없이 183만 전북의 도민들과 14만의 전북 장애인도민들에게 고백합니다. 지난 2017년에 우리 연대에 소속된 단체 두 곳에서 직원에 의한 장애인학대의혹사건과 단체장의 아들의 의한 장애인학대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전북장애인차별철패연대는 아직은 의혹단계라는 핑계로 진상을 밝히는데 앞장서지 않았습니다. 경찰의 수사결과를 보고 행동하겠다는 명분도 가지고 있었지만 그전에 전북장애인차별철패연대가 장애인학대 사건들을 대하는 태도와 전혀 다른 태도이었습니다.

무슨 이유에서는 결과적으로는 그때 우리 전북장애인차별철패연대 모습은 직무를 망각했던 모습이었고, 자기 식구 감싸는 모습이었다는 것을 장애인도민을 포함한 전북도민들에게 고백합니다. 또한 이 자리에서 이를 통절한 반성도합니다.

우리 전북장애인차별철패연대는 두 번 다시는 그와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남의 띠를 보기 전에 내 들보를 먼저 보라는 옛 가르침대로 우리 전북차별철패연대 안에서 장애인차별이나 학대가 발생하지 않지를 먼저 살피고 만의 하나 그와 같은 사건이 발생하면 누구보다 먼저 앞장을 서서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내겠습니다.

과거에 비해 많이 없어졌다고 하지만 아직도 우리 장애인들은 사회전반에서 기회의 불평등과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학대와 멸시를 받은 일도 많습니다. 본인의 의사와 의지와는 관계없이 석방 없는 감옥인 시설에서 꿈도 가지지 못하고 개돼지처럼 취급 받으면서 살고 있는 장애인들도 많습니다.

특히 전북은 2007년 군산영광의 집 장애인인권유린사건 이례로 2012 전주자림원 성폭행사건, 2012년 남원평화의 집 폭행폭력사건, 아직도 진행중인 무주하은의 집 인권침해사건, 또 한 번 큰 충격을 줄 것으로 예고하는 있는 정읍행복의 집 제산편취사건까지 시설에서 대형 장애인 학대사건들이 끝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전북은 장애인학대사건의 고장이라는 오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북에서 이와 같은 이들이 근절될 수 있도록 우리 전북장애인차별철패연대가 앞장을 서서 투쟁하겠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작년 12월 9일에 국회에서 발위된 장애인탈시설화지원법에 따라 장애인들이 본인의 의사와 의지에 따라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 살 수 있는 전북을 만드는데 앞장을 쓰겠습니다. 학교와 직장 등 사회 전반에서 발생하는 장애인차별과 멸시 학대사건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겠습니다.

이런 우리 전북장애인차별철패연대는 사명을 충실하게 수행하겠다는 것을 새롭게 출발하는 이 자리에서 굳게 맹세합니다.

2021년 1월 28일

전북장인차별철패연대 일동

-기자회견 방송보도
http://ch1.skbroadband.com/content/view?parent_no=24&content_no=64&p_no=116198

<첨부문서 5.> 민주노총전북본부-손수레협회 사안(2017년)관련 입장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북지역본부

KOREAN CONFEDERATION OF TRADE UNIONS-JBRC

전북 전주시 덕진구 백공로 57 우성타운 3층 / 전화(063)256-5000 / 전송(063)256-5004 Home : jbnodong.org

문서번호 민주전북 2022-114호 **시행일자** 2022. 07. 27.(수)

수 신 전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 평화주민사랑방

제 목 손수레협회 사안(2017년) 관련 민주노총전북본부의 입장

1.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귀 단체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민주노총전북본부는 전북장차연에 대한 평화주민사랑방의 문제제기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입장임을 밝힙니다.

- 다 음 -

○ 민주노총전북본부는 평화주민사랑방의 문제제기와 관련하여 2017년 당시 상황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지 못하였던 상태였고, 평화주민사랑방의 문제제기와 전북장차연의 입장문의 설명 대상이 상이한 것으로 보여 쟁점에 대해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평화주민사랑방 문OO 대표, 전북장차연 강OO 대표, 이OO 활동가, 김OO 전 공무본 집행위원장 등을 만나 문제제기의 내용에 대해 확인하였습니다.

- 2022/03/21 전북장차연, 집행위원회, 민주노총전북본부(이준상, 강문식)는 전북장차연의 공개 입장 필요하며 사건 당시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필요하므로 제3자가 조사 및 서술하여 공개하자는 의견 제시, 이를 전장연에 요청할 것 제안.
- 2022/04/01 전북장차연, 집행위원회, 전장연에서는 조사 불가능하다고 회신하였다고 함. 이에 "공무본 (전)대표자들의 입장" 문서를 확인절차 거치고 보완하여 공개하기로 함.
- 2022/05/16 전북장차연, "평화주민사랑방 문태섭대표의 문제제기" 에 대한 전북장차연의 입장 표명
- 2022/05/20 평화주민사랑방, 전북장차연의 입장문에 대해 우리(단체(평화주민사랑방)의 요구사항에 해당하는 내용을 발견하지 못하였다고 게시
- 2022/05/25 민주노총전북본부(조혜진, 이준상, 강문식), 평화주민사랑방(문OO) 간담회, 평화주민사랑방의 문제제기 내용에 대해 확인, 평화주민사랑방은 현 장차연 대표/집행위원장의 대외활동 1년 중단, 장차연 명의의 사과문, 김OO 전 공무본 집행위원장의 장OO 활동가에 대한 사과 요구.
- 2022/05/31 민주노총전북본부(강문식), 전 공무본 집행위원장(김OO) 미팅, 당시 공무본 운

영 상황, 전 집행위원장의 당시 입장(사의 표명), 이OO-전북도 합의 내용 미인지 등 설명. 이외 구체적 사실관계 파악 어려운 조건임을 확인. 사실관계 확인 여부 떠나 결과에 대한 사과는 필요하다고 제안하였고 전 집행위원장도 긍정.

- 2022/06/16 민주노총전북본부(조혜진, 강문식), 전북장차연 강OO 대표 간담회. 강OO 대표, 문제제기 사항에 사과하겠고 의사 밝힘.
- 2022/06/23 민주노총전북본부(조혜진, 강문식), 평화주민사랑방(문OO)·이OO 활동가 간담회. 대외활동 중단의 범위, 사과문의 구체 내용 확인. 장OO 활동가에 대한 사과는 필요하지 않음을 확인. 전 공투본 집행위원장이 스스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강의 등을 통한 언급 지속할 것이라는 평화주민사랑방 입장 확인.
- 2022/07/07 강OO 대표, 평화주민사랑방 요구 사항 수용하겠다는 의사 민주노총전북본부에 전달.
- 2022/07/13 민주노총전북본부(조혜진, 이준상), 평화주민사랑방(문OO) 간담회. 현 장차연 대표/집행위원장의 대외활동 중단 기간 2~5년 요구. 민주노총전북본부는 이 같은 조정은 불가능하다고 답변.
- 2022/07/15 민주노총전북본부, 내부 논의에서 단체(전북장차연)의 절차, 기준에 따른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는 민주노총전북본부의 입장문을 양측에 전달하는 것으로 결정.

○ 민주노총전북본부는 이 과정에서 2017년 당시 사건의 경과는 다음과 같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2017/05/18 전북CBS, 손수레장애인주간보호센터 지적장애인 폭행 의혹 보도
- 2017/05/23 전북장차연, 회의에서 경찰수사를 지켜본 후 대응하기로 결정
- 2017/06/07~08 이OO 활동가, 전북도청 앞 1인 시위 및 농성. 06/08 전북도 면담 후 1인 시위 및 농성 보류
- 2017/06/19 이OO 활동가, 전북도청 앞 노숙농성 시작. 6/27 단식투쟁 전환 예고.
- 2017/06/27 전라북도, 민관합동감사 요구 수용 및 언론 보도, 이OO 활동가, 농성 중단.
- 2017/07/19 전북공투본, 대표자회의. 손수레협회에 관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 공투본 전 집행위원장, 평화주민사랑방에 대표자회의 논의결과로 "현시점에서 공투본은 손수레협회에 관한 어떠한 조치를 취하거나 논의하지 않습니다. 더불어 감사위원 추천은 전라북도에서 연락오면 논의한다. 별도로, 현재 공투본 집행위원장인 저는 현재 추진중인 몇 가지 사항만 점검하고 직책을 사임한다"고 전달.
- 2017/07/25 이OO 활동가, 송하진 도지사 약속이행 촉구 농성 시작. 민간 추천 감사를 전북공투본에서만 추천받겠다는 전북도의 입장이 쟁점이 됨.
- 2017/07/26 손수레협회, 표적수사 반대 전북도청 로비 집회
- 2017/07/27 이OO 활동가 농성에 대한 중증센터의 조직적 연대 중단됨.
- 2017/07/28 전북도, 전북공투본에 민관합동감사 감사 추천 요청 공문(노인장애인복지과-12159) 발송
- 2017/08/01 전북공투본, 감사 추천하지 않는다는 공문 전북도에 회신. 이OO 활동가, 단식

농성 후 병원 후송.

○ 민주노총전북본부는 이상의 과정에서 평화주민사랑방의 문제제기가 다음의 내용인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1) 근거 없이 피해자의 부모를 가해자로 의심하고 수사결과를 지켜보자고 하였음
2) 이OO 활동가의 투쟁으로 전라북도가 손수레 민관합동감사를 진행하기로 합의하였고(2017. 6. 27.), 구두합의 상 사회복지 전문 감사경력자가 감사로 참여하기로 함
3) 당시 투쟁을 논의하던 회의체계인 전북공투본의 회의(2017.7.19)가 기존의 절차와 방식대로 소집되지 않아 활동 주체들이 배제되었고 감사추천과 관련한 결정에도 문제가 있음
4) 이에 동의하지 않고 투쟁을 이어가던 이OO 활동가의 투쟁에 조직적 연대가 중단되었음
5) 전라북도의 민관합동조사 감사 추천을 요구 공문(2017.7.28)을 반려하지 않고 감사를 추천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여 이OO 활동가가 얻어낸 민관합동감사 실시 합의가 무력화되었음

○ 이상과 관련한 전북장차연의 입장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과 관련하여 전북장차연이 기 발표한 입장문에서 인정하고 사과하였음.

3)과 관련하여 전북장차연의 입장문에서 "○ 2017. 07. 19. 공투본 대표자 회의를 진행하여 손수레 대응문제에 대해 경찰수사를 시켜본 후 대응하기로 결의 / ☞ 대표자들의 의견과 다른 집행위원장(김OO)은 사의를 표명 / ☞ 전북장차연과 같은 사유를 들어 결정"으로 기재.

4)와 관련하여 전북장차연 입장문에서 "☞ 초기에는 전북장차연 활동가들이 동참하였으나 중증센터 활동가의 자체로 인해 1인 농성을 이어감 / ☞ 추후 전라북도와 협의를 통해 손수레 주간보호센터 감사를 관철시키고 1인 시위를 종료"로 언급.

5)와 관련하여 전북장차연 입장문에서 "○ 2017. 07. 28. 전라북도가 공투본에 '감사위원 추천 협조' 공문 발송 / ☞ 이OO 활동가의 협의된 내용으로 공투본에 감사추천을 요구 / ○ 2017. 08. 01. 공투본은 전라북도에 '감사위원 추천하지 않음'로 공문 발송 / ☞ 공투본 대표자회의 결정내용과 재차 유선상으로 감사추천에 대해 의향 물어 '감사위원 추천하지 않음'으로 결정 / ☞ 추천하지 않음에 대한 사유로는 같은 회원단체가 회원단체를 감사한다는 모호성과 객관적인 감사위원 추천을 하기 어려운 상황 등을 이유로 결정"으로 기재.

○ 이상을 종합하여 민주노총전북본부는 아래와 같이 판단합니다.

ㄱ) 2017. 07. 19. 공투본 대표자회의에서 감사 추천 관련된 논의가 이루어졌다면, 이연호 활동가의 투쟁으로 민관합동감사가 수용되었던 만큼 해당 사안이 공투본에서 논의결정된 것 자체가 적절하지 않았다고 판단함.

ㄴ) 2017. 07. 28. 전라북도에서 발송된 민관합동감사 감사추천 요청 공문에 감사를 추천하지 않는다고 회신(2017. 8. 1.)한 것은 이OO 활동가 및 연대한 활동가들의 투쟁의 성과를 무력화시키는 결과를 낳았다고 판단함.

ㄷ) 이OO 활동가의 제기에 따르면, 중증센터의 조직적 연대가 중단된 것은 2017. 07. 27.로

이는 손수레주간보호센터 감사가 결정된 이후의 일이며, 손수레협회의 도청 로비 집회 등 당시 상황의 맥락 안에서 설명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함.

ㄹ) 2017. 07. 19. 공무본 대표자 회의의 소집 방법 및 절차, 회의결과 등은 확인이 필요함. 이에 대해서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으나, 당시 공무본이 원활히 운영되지 않는 상황이었음을 확인함.

ㅁ) 이외 기존 전북장차연의 입장문에서 평화주민사랑방 측의 문제제기 중 해명되지 못한 사항이 있음.

○ 결론

민주노총전북본부는 그간 경과를 검토한 결과 해당 사안이 평화주민사랑방의 요구를 수용할 것인지 여부를 정하는 방식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며, 문제 해결에 있어 전북장차연 조직의 절차와 기준에 입각해 객관적인 조사와 이에 따른 적절한 책임이 지워져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또한 당시 사건에 관련된 사람 모두를 가/피해자로 구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합니다. 민주노총전북본부는 이상의 문제 해결을 위한 절차가 진행될 때까지 전북장차연 소속단체로서의 활동을 일시 중단하고자 합니다.

붙임자료1. 평화주민사랑방 문제제기 에 대한 전북장차연의 입장 표명
붙임자료2. 전북장차연 분쟁중재위원회 활동 보고
붙임자료3. 공무본 전 집행위원장 글(2018. 4. 3.)
붙임자료4. 이OO 활동가 글(2017. 9. 15.)
붙임자료5. [전북도민일보] 전북도, 장애인손수레자립생활협회 민관 합동감사(2017. 6. 27.)

문의 : 010-7172-5484 (전북본부 교선부장 이준상) <끝>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북지역본부장 박두영

<첨부문서6.> - 강현석대표, 유승권집장 사과문

: 9월 28일 평화주민사랑방에 발송하여 검토요청함.

'평화주민사랑방과 협의한대로' 라는 문구를 삭제요청해 수용 했으나 최종 협의안됨.

"평화주민사랑방 문태* 대표의 문제 제기"에 대한

공개 사과문(안)

지난 2016년 자림원 인권침해(성폭력)와 거주시설 거주인에 대한 탈시설, 지역사회 내 자립생활 강화 등을 이유로 전북장차연, 자림성폭력대책위, 평화의집전국대책위 및 개별단체들이 참여하는 '전북장애인인권보장공동투쟁본부(이하 '전북공투본')'을 결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결의는 결국 전라북도의 인권보장 촉구를 위해 천막농성을 시작하게 되었고 일부 협의가 이루어져 2016년 10월 31일부터 2016년 12월 23일까지 54일 동안의 천막농성을 마무리(2017. 2. 16)하고 점진적인 협의들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전북장차연 소속 단체였던 손수레자립생활협회(이하 '손수레협회')에서 주간보호센터 이용인에 대한 폭행 의혹이 신문보도(2017. 5. 18. 전북CBS)를 통해 알려지게 되어 전북장차연 및 공부본에서 폭행에 대한 사안을 가지고 여러 차례의 논의를 통해 '수사결과를 지켜 본 후 논의한다'라는 결론을 도출하였으나 평화주민사랑방(이하 '사랑방') 문태성대표의 계속된 문제 제기에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해 현시점까지 오게 된 것을 먼저 사과드리며 그 동안 쟁점이 되었던 부분에 대해 사실을 규명하고 그에 따른 책임자의 공개사과와 이에 상응하는 도덕적 책임을 사과문을 통해 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쟁점으로 전북장차연 월례회의(2017. 5. 3.)에서의 손수레협회 폭행 의혹 사안에 대한 '경찰조사 후 논의' 결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전북장차연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던 중증장애인지역생활지원센터(이하 '중증센터')는 손수레협회 사안에 대해 전체직원 및 활동가를 대상으로 전체회의를 소집하여 논의한 바, 일부 활동가의 반대가 있긴 하였으나 다수의 찬성으로 '경찰조사 후 논의'로 결정하였습니다.

이후 전북장차연 회의를 통해 손수레협회 사안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중증센터의 결정에 다수 단체들의 동의가 있어 전북장차연의 공식 입장으로 결정되었던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의 간극을 두고 생각한바 그때의 중증센터의 결정과 전북장차연의 결정에는 판단오류가 있었음을 인정합니다.

중증센터에서 논의과정 중 소수의 의견에 조금 더 귀기울이지 못한 점, 일방적인 다수의 의견만으로 결정한 점, 이O호 활동가의 1인 천막농성을 지지하는 활동가를 충분히 지원하지 못한 점을 깊이 있게 반성하고 사과를 드립니다. 또한 이O호 활동가의 활동은 올바른 장애인당사자로서의 가치있는 활동이었으며 장애운동을 함께 했던 장애인동지들의 마음에 상처가 되었던 것에 대해 다시 한번 정중히 사과드립니다.

이와 맞물려, 전북장차연 내에서 논의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장애인당사자나 보호자 등 피해자 상

담을 진행하지 못한 크나큰 실수를 저질러 명확한 논의와 그에 따른 결과를 도출해내지 못한 대표자로서도 막중한 책임감과 그로 인한 사죄의 마음이 지금도 남아 있음을 진솔하게 말씀드립니다.
그 어떤 이유였던 간에 있을 수 없었던 일이었음을 인정합니다.

두 번째 쟁점이 되었던 것은 전북공투본 대표자 회의의 '경찰조사 후 논의'에 대한 결정입니다. 당시 전북공투본 조직은 천막농성 해산 이후로 특별한 활동이 하지 않았던 상황이었으며 장애인단체 중심의 대표단들이 구성되었던 시기로 손수레협회 사항을 중심으로 대표자 회의(2017. 7. 19.)를 진행하게 되었는데 전북장차연 조직이 공동대표자들로 구성되었기에 전북장차연의 결정을 따르게 된 논의였음을 사실로 인정합니다. 이 회의 결정사항에 반대하여 집행위원장이 사의를 표명하였고 사실상 조직적 활동이 어렵게 된 회의였기도 했습니다. 이 때라도 피해 장애인이나 보호자에 대한 상담이 이루어졌다면 보다 명확한 논의와 그에 따른 적절한 결과를 논의될 수 있었으나 그러지 못한 과오를 깊이있게 반성하면서 송구스러움 마음 금할 수 없음을 전해드립니다.

세 번째 쟁점은 전북공투본의 '감사추천하지 않음' 결정내용입니다. 2017. 7. 28. 전라북도는 전북공투본에게 공문으로 '감사위원 추천협조' 공문을 발송하여 2017. 8. 1. '감사위원 추천하지 않음'으로 공문을 발송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앞선 전북공투본 대표자회의를 결정사항을 토대로 '감사위원 추천하지 않음'에 결정에 대해서도 많은 결정오류가 있었음을 인정합니다. 전북공투본 해산 이후 대표자회의의 진행이 제대로 이루지지 못해 유선상으로 각 대표자의 의견을 재차 확인하고 '감사추천하지 않음'으로 공문을 발송한 점과 민간 감사위원 추천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 냈던 당사자인 이O호 활동가와 충분한 소통도 없이 결정한 사항, 민간감사의 경험이 많았던 감사위원이 있었음에도 추천을 포기한 결정을 하게 되었던 것에 대해 이O호 활동가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드리며 앞으로 조금 더 인권의 감수성을 키워 나가는데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쟁점에 대해 깊은 반성과 성찰을 통감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일련의 조치를 취하고자 합니다.

1. 전북장차연은 지난 사항을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전북장차연 규약'에 피해자 상담원칙(이미 8월 29일 임시총회를 통해 부칙 제3조에 규정)을 명시하겠습니다.

2. 공개 사과문을 공개 발표하는 즉시 전북장차연 공동대표 강현석과 집행위원장 유승권은 전북장차연의 공동대표직과 집행위원장직에 대한 활동정지(이미 8월 29일 임시총회 결정을 시행중)를 결의하며 평화주민사랑방과 협의한대로 모든 인권관련 위원회등 외부활동을 2년 정지하겠습니다.

위의 조치를 통해 마음에 깊은 상처를 입었을 모든 관련자들께 조금이나마 사죄를 표하며 그동안 과오들을 깊이 반성하며 성찰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 강현석
전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 집행위원장 유승권